

도시 저소득층소비자의 경제문제에 관한 연구*

- 서울과 인천의 주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conomic Problems of Urban Low-income Families

인하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 윤 정 혜

Dept. of Home Management

Inha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Chung-Hye Yoon

목 차

I. 문제제기	III. 연구방법
II. 이론적 배경	1) 연구절차
1) 소득문제(경제적 곤경도 추정을 중심으로)	2) 조사도구
2) 소비문제	IV. 결과 및 해석
3) 빈곤문화와 가치지향	1) 소득문제
4) 연구문제	2) 소비문제
	V. 결 론

= ABSTRACT =

This study attempts to explain the income and consumption problems of urban low-income consumers and to explore factors of their poverty.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24 low-income home managers. All the subjects live in Seoul and Incheon.

The major findings are: First, low-income families seriously suffer from low income and small property. And the degree of economic hardship is the most serious with wife-working families whose husbands have no job or are dead. Second, low-income consumers have low budgeting and purchasing skill. Third, low-income consumers have 'doing' orientation but have fatalistic value orientation.

*본 논문은 1985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tegrative measurement of economic hardship. It also suggests that low level of low-income consumer's skill can be well explained in terms of man-nature value orientation.

문 제 제 기

오늘날 대도시의 빈곤문제, 특히 영세민이 집 단거주하는 무허가 정착지역의 형성은 우리사회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현상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빈곤인구의 도시집중에 의해 가속화되어 왔다.

이들 도시저소득층소비자는 자원이 극도로 궁핍한 상태에 있으며, 그들이 겪고 있는 경제문제는 소득문제와 소비문제의 두 측면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 가계의 생활표준은 소득의 크기와 소득이 소비되는 방법의 함수이기 때문이다(Schnapper, 1967). 즉 저소득층소비자에게는 주어진 조건의 향상이라고 볼 수 있는 소득증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어진 조건아래서 실질소득을 극대로 활용하기 위한 효율적 소비에 관한 문제도 중요하다고 본다.

가계의 경제문제를 소득문제와 소비문제로 구분하여 볼 때, 최근 소비자경제학분야에서는 주로 소비문제의 측면에서 조명한 연구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기능·태도·지식을 파악함으로써 소비자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연구들(이기춘, 1985; 정진화, 1985)과 개인과 시장환경의 두 측면에서 저소득층소비자문제를 분석한 연구(김경자, 1986)가 있다. 그리고 소비자경제학분야에서 행해진 소득문제에 관한 연구로는 "가계소득 적정도 인지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김민정, 이기춘, 1984)가 있고 저소득층가계의 소득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연구는 없었다. 반면, 사회과학분야에서는 빈곤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저소득층가계의 소득실태를 조사한 연구가 많이 행해져 왔다(노창섭, 1967; 이해영·이홍구·임희섭, 1972; 서상목·박환구·김종기·

임희섭·최일섭·이영희·김성순, 1981; 김영모·원석조·황민수, 1982; 김영모·김성천, 1986). 그러나 이 연구들도 가계소득에 대한 정확한 척도를 구성하지 않고 부정확하게 수집된 자료를 개략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치고 있다(최일섭·김광억, 1982).

한편 우리나라 도시저소득층소비자의 대부분은 농촌영세농출신인데, 이와 관련하여 Lewis(1966)는 자본주의 초기단계에서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 온 도시영세민에게서 숙명론, 무기력, 의타심 등의 빈곤문화가 가장 뚜렷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빈곤문화에 대해서는 도시빈민이 근면한 생활태도를 가진 '건전한 빈자'라는 연구(임희섭, 1979; 박영숙, 1984)와 나태하고 숙명론적인 태도를 가진 '빈곤에 적응된 빈민'이라는 연구(김영모·원석조·황민수, 1982)의 두 견해가 있다. 따라서 인간의 지속적 행동의 선택기준으로 작용하는 가치지향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도시저소득층소비자에게 빈곤문화적 특성이 있는가를 좀 더 깊게 분석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배경아래서, 본 연구는 도시저소득층소비자의 경제문제를 소득문제와 소비문제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소득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가계만을 대상으로 빈곤가계유형에 따른 경제적 곤경도와 가족원의 경제적 기여도를 실태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소비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소비자 및 중간소득층소비자를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가치지향과 소비자기능의 차이 및 가치지향에 따른 소비자기능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소득문제 (경제적 곤경도 측정을 중심으로)

저소득층가계의 소득분제는 저소득으로 인한 빈곤이 영구적이며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데 있다. 이는 곧 만성적인 경제적 곤경상태로서 자원이 극도로 궁핍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적절히 사회에 참여하거나 그들의 인적자본을 최고의 잠재력으로 개발시킬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Watts & Skidmore, 1978, p.21).

우리나라의 빈곤실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회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1960년대 이래 현재까지 계속 행해져 오고 있다 (노창섭, 1967; 이해영 외 2인, 1972; 서상목 외 6인, 1981; 김영모 외 2인, 1982; 김영모, 김성천, 1986).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는 것은 가계복지수준을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현실적으로 신빙성있는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응답자의 응답에만 기초하여 가계소득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고 있다 (최일섭·김광역, 1982, p. 310). 그런데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공평한 빈곤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가계소득의 측정을 통한 개별가계의 경제적곤경도 비교가 반드시 필요하다.

빈곤의 측정은 일반적으로 현재소득과 "적정" 소득을 구성하는 일정기준간의 차이에 기초하고 있다. 적정소득의 구성기준은 소득요구 (income need)로서 가족의 크기 및 유형, 소비 및 저축 유형, 거주지역, 도시화의 정도, 가족생활주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가족의 크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Madden, Pennock & Jaeger, 1968). 그리고 개별가계가 처한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수준의 빈곤선은 경제

적공평의 실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물량방식에 의한 절대빈곤개념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에 미달한 가계를 빈곤가계로 선정하고 있으며 (서상목 외 6인 1981, p. 89), 개별가계의 상황적 요인을 빈곤가계 선정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경제적 공평, 즉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¹⁾을 모두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화폐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비가능자원과 개인이 처한 상이한 상황을 포괄하는 자원지배에 대한 종합적 척도가 필요하다 (Moon & Smolensky, 1977, pp.2-3; Watts & Skidmore, 1978, p.26). 먼저 소비가능자원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구성요소로서 근로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을 가산하고 부채이자, 이전지출, 집세 등의 자산사용액을 감산해야 한다 (Atkinson, 1975, p.31) 또한 소득이외에 저장 (stock)으로서의 재산의 크기를 소비가능자원에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자원지배를 제약하는 개별가계의 상황적 요인으로는 가구주의 성별, 부부의 취업유무, 가족생활주기의 자녀양육의 필요, 가족원의 질병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빈곤가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여성가구주가계가 빈곤층에 밀집되어 있다는 점과 빈곤층 여성들의 다수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서상목 외 6인, 1981; 최일섭, 1984). 이처럼 빈곤가계에 있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주요특성임을 고려할 때, 가구주 성별과 부부의 취업유무는 빈곤가계의 중요한 상황적 요인이 되며, 이에 따라 빈곤가계유형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2) 소비문제

저소득층소비자의 소비문제는 낮은 구매력으로 인해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문제, 즉 시장행사력 (market leverage)의 부족으로부터 나오는

註1) 경제적 공평은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평적 공평은 동일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며, 수직적 공평은 상이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상이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Baumol & Blind, 1979, pp. 631-632).

것으로서, 시장에서 화폐에 대한 충분한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여 효율적소비에 대한 장애를 갖게 된 것을 말한다(Andreasen, 1975, p.6; Swagler, 1979, pp. 247 - 250). 저소득층가계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주어진 소득으로 더 많고, 더 나은 양과 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의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소비의 효율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증대된 소득의 이익도 나쁜 소비습관으로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Schnapper, 1974, p.83). 저소득층가계에 있어서는 작은 단위의 비효율적 소비라도 더 높은 소득계층에 비해 가계복지에 미치는 위험의 비중이 크게 되어 불이익의 강도도 증대된다.

효율적 소비에의 장애요인은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과 시장환경요인으로 대별될 수 있다(Andreasen, 1975, p.7; Swagler, 1979, pp.42 - 46). 소비자의 개인적특성에 따른 소비문제는 빈곤, 고령, 낮은 교육수준, 낮은 소비자기능 등으로 인한 장애를 말한다. 시장 환경요인에 따른 소비문제는 상점의 높은 관리비용과 부실관리로 인해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으로 낮은 품질의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시장구조문제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상거래 및 저소득층소비자의 취약성을 이용하는 상인의 착취문제를 일컫는다. 이 두가지 장애요인은 소비문제에 있어서 복합적인 상호작용효과를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소비자기능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저소득층소비자의 소비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비문제는 소득의 각 소비범주별 배분 및 소비와 저축의 배분에 관련된 금전관리문제와 예산기간동안 주어진 소비욕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능한 대안 중에서 특정 상품과 서비스 및 판매점을 선택하는 결정에 관련된 구매결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Andreasen, 1975, p.31).

첫째, 금전관리문제는 저소득층의 제한된 소

유의 한도내에서 비빈곤층과 다르지 않은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소득의 수준이 매우 낮고 안정성이 결핍되어 있다는 문제이다. 저소득층소비자는 기본적인 생필품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위기에 재정적으로 대처하기가 곤란하다. 또한 구매하고자 하는 양이 표준보다 작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저소득층 소비자가 제한된 소득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극적 방안의 하나는 주로 기본필수품만을 구매하고, 가계생산으로 지출을 줄이며, 비상시를 위해 조금이라도 저축을 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채의 축적을 막고자 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다²⁾. 그런데 생활이 나아질 희망을 갖고 있지 않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거부당했던 존재를 물질적 재화의 축적을 통해서 고취시키고자 하는 “보상소비(compensatory consumption)”적 욕망이 있다고 한다(Caplovitz, 1967, p.13; Magnuson & Carper, 1972, p.39). 만일 저소득층소비자들이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경우는 상인의 사기와 기만에 쉽게 현혹되고 구매력의 한도이상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게 되기 쉽다. 우리나라 저소득층소비자들도 기본필수품만 구매하고, 주거비·음식물비·교육비·의료비 등의 지출은 최대한도로 줄이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박영숙, 1984, p.411). 그리고 Ratner(1978, p.113)는 저소득층소비자에게 계획기능과 생활에 대한 통제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금전관리문제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지출을 축소하는 긴축기능과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지출계획을 세우고 결산 및 평가를 하는 예산기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구매문제는 주어진 욕구를 최저비용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적정정보량의 획득과 관련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소비자들은 교육수준이 낮고, 구매경험이 적으므로 시장경험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서 시장에서 도움이 되는 구매기

註2) 이를 Andreasen(1975, pp.38-39)은 최악의 경우 입게 될 최대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전략 즉 Minimax Strategy라고 함.

중수준이 낮다 (Caplovitz, 1967, p.14, Eastwood & Swagler, 1982, p.80). Newman 과 Staelin (1972)은 구매결정과정은 학습경험이며, 교육은 정보탐색의 능력과 관심을 나타내므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탐색정도는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기춘, 1985; 정진화, 1985)에서도 교육년수가 증가할수록 소비자능력 및 소비자지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도시보다 평균소득수준이 낮은 농촌주부의 구매행동연구에서도 구매의사결정 합리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변수 중에서 교육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윤정혜, 1981). 소득계층별로 도시주부들의 소비자기능, 시장위험도, 소비자문제를 비교한 김경자(1986)의 연구결과를 보면, 월평균가계소득이 27만원이하인 저소득층소비자가 다른 소득층에 비해 소비자기능이 가장 낮았고, 시장위험도는 가장 높았으며, 구매와 관련되어 소비자가 지각한 소비자문제의 정도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기능이 낮을수록 소비자문제의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비자의 탐색행동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에서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제한된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며, 탐색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atona & Mueller, 1975, pp.30-87; Newman & Staelin, 1972, pp.249-257).

3) 빈곤문화와 가치지향

인류학자들의 혹은 빈곤가족연구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은 그들 특유의 사회적 또는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Lewis(1966)는 “빈곤층의 태도와 가치는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와는 구별되는 독립된 하위문화로서 그 특성은 빈곤수준에 적응된 낮은 열망수준이며, 사회화를 통해 다음 세대로 전승된다”는 빈곤문화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빈곤문화는 반드시 경제적 박탈이나 해체, 즉 어떤 사물의 결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 이상의 어떤 적극적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어서 빈민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되

는 문화구조이며 끈기이고 방어기제가 되는 것이다(Lewis, 1963, p. xxiv)

이러한 빈곤문화개념에 대해 일부학자들(Liebow, 1969; Valentine, 1968)은 빈곤층은 사회전체의 지배적 가치는 공유하고 현재의 빈곤에 대한 적응에 있어서만 이탈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빈곤문화개념을 부정하고 있다. 빈곤문화개념의 적합성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으나, 미국의 저소득층소비자를 연구한 여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빈곤층이 심리적으로 무기력하고, 운명론적인 사고를 하며, 성취동기가 낮고 현재지향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다(Andreasen, 1975; Caplovitz, 1967; Schnapper, 1967; Swagler, 1979).

우리나라 저소득층소비자에게도 빈곤문화적 특성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두가지 견해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는 우리나라 빈곤층은 열망수준이 높은 ‘건전한 빈자’라는 견해(임희섭, 1979; 서상목 외 6인, 1981; 박영숙, 1984)이고, 둘째는 우리나라 빈곤층은宿命론, 절망, 무기력 등 빈곤문화적 태도가 빈곤층의 과반수 정도 형성되어 있는 ‘빈곤에 적응된 빈민’이라는 견해이다(김영모 외 2인, 1982).

이와같은 견해에 대해 표갑수(1983, p.163)는 빈곤문화에 대한 대립적인 견해를 가진 연구로 임희섭의 연구(1979)와 김영모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1982)를 들어 비교·평가하고 있다. 그는 두 연구의 연구시점이 10년의 시차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결과의 상이성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즉 전자의 연구시점인 1970년대 초반은 높은 구조적 이동률로 인해 빈곤탈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보며, 후자의 연구시점인 1980년대 초반은 계층적 상향이동에 실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회심리적 태도가 부정적으로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는 Lewis가 빈곤문화의 대상으로 했던 사람은 빈곤층 중에서도 극빈층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연구의 조사대상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임희섭은 서울시의 저소득층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했고 김영보와 그의 동료들은 절대빈곤층인 영세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빈곤 문화적 특성이 후자의 경우 더욱 잘 나타났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김영보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는 숙명론, 절망, 무기력, 포기, 권태 등의 태도가 우리나라의 빈곤층에게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특성인가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덧붙여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소비자의 빈곤문화적 특성을 인간의 지속적행동의 선택기준으로 작용하는 가치지향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치지향 개념은 기본가치개념으로부터 나오는 동시에 기본가치개념에 영향을 미친다. Kluckhohn 과 Strodtbeck(1961, p. 4-29)의 정의에 따르면 “가치 지향은 복잡적이지만 일정하게 유형화된 (순위매겨진) 원리로서 평가과정의 3가지요소 - 인지적, 정의적, 지향적 - 의 역동적인(transactional) 상호작용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러한 평가과정은 인간의 행동과 사고의 끊임없는 흐름에 순서를 매기고 방향을 지운다”. 그들은 가치지향개념 형성에서 평가과정 전체의 지향적 측면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가치지향과 행동과의 관계는 대부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상호적 관계이지만 행동범주의 특정유형보다는 가치지향에 보다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치지향이 행동에 우선한다고 본다. Kluckhohn 과 Strodtbeck(1961)은 가치지향을 인간의 본성,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시간관, 인간활동양식, 인간관계양식의 다섯 영역으로 분류하며 각 영역의 가치지향은 상호독립적으로 변한다고 본다. 저소득층소비자의 빈곤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다섯영역 중에서 소비자기능에 보다 밀접하게 관련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활동지향, 시간지향, 인간-자연지향의 세 영역을 선택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간지향

인간생활에 있어서 시간적 초점에 관한 가능한 문화적 해석은 과거, 현재, 미래 지향의 3가지 범

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과거」지향은 현재에는 어떤 새로운 것도 일어나지 않으며 미래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것은 아주 먼 옛날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현재」지향은 과거에 일어난 것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미래는 모호하고 예측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미래」지향은 변화가 기존가치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한 변화를 높이 평가하는 견해로서 미래를 “더 크고, 더 좋은”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2) 활동지향

활동에 대한 인간의 자기표현양식의 본질에 관한 문제에 중심을 둔 것으로 욕구충족적, 통합적, 목표지향적 지향의 3가지 양식이 있을 수 있다. 「욕구충족적(being)」양식은 인성에서 “주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활동유형을 선호하는 것이다. 「통합적(being-in-becoming)」양식은 통합된 전체로서의 자아의 모든 측면에 걸친 발달을 목표로 하는 활동유형을 선호하는 것이다. 「목표지향적(doing)」양식은 활동하는 개인의 외부적인 기준에 의해 측정가능한 성취를 가져오는 활동유형을 선호하는 것이다.

(3) 인간-자연지향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가능한 입장은 자연복종적, 자연과의 조화, 자연정복적 지향의 3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자연복종적」입장은 태풍, 질병, 죽음 등의 자연의 힘에 대해서 운명론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다. 「자연과의 조화」의 입장은 인간, 자연, 초자연에 대한 실질적 구분 없이 그것들의 통합체로부터 전체성개념을 강조하는 것이다. 「자연정복적」입장은 인간은 모든 종류의 자연의 힘을 극복할 수 있으며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상의 가치지향은 문화집단마다 변이가 있을 수 있다. Kluckhohn(1950)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Yankee City와 같은 쇠퇴하는 오래된 지역의 상류층은 과거지향적 시간관과 욕구충족적 또는 통합적 활동을 선호하며, 하류층은 현재지

향적 시간관과 욕구충족적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Trinidad의 흑인가족을 참여관찰한 Rodman의 연구(1971, pp.194-195)에 의하면, 빈곤층은 부족한 자원으로 인해 그 사회의 지배적 가치 중 일부분에는 적응하기 곤란하므로 그들의 박탈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의 보편적 가치는 거부하지 않고 일부가치에 대한적인 가치를 개발하여 그들의 가치를 확장시킨다고 한다.

4) 연구문제

앞에서 제시된 선행연구의 고찰에 기초하여 저소득층소비자의 경제문제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적 근거들을 다음과 같이 추출해 볼 수 있다.

첫째, 저소득층 가계의 경제적 곤경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및 가계가 처한 상황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저소득층소비자의 빈곤문화적 특성은 그가 지닌 가치지향을 통해서 파악될 수 있다.

셋째, 저소득층소비자의 소비문제는 소비자기능을 통해서 파악될 수 있는데, 소비자기능은 사회경제적 변수 및 소비자의 가치지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들을 기초로 하여 저소득층소비자의 경제문제를 소득문제와 소비문제로 구분하여 실증적 연구를 행하기로 한다.

(1) 소득문제

소득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빈곤가계유형에 따라 경제적 곤경도 및 부인과 자녀의 경제적 기여도의 실태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에 관련된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① 경제적 곤경도

저소득층가계의 궁핍한 자원 상태에 대해 화폐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비가능자원과 개인이 처한 상이한 상황을 포괄하여 자원지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개념이다.

② 부인과 자녀의 경제적 기여도

부인 또는 자녀가 가사노동외의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획득한 소득이 총가계소득에 기여하는 정도이다.

③ 빈곤가계유형

가계의 소비가능자원에 대해 가계가 처한 상황적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하기 위한 개념이다. 가구의 성별과 부부의 취업유무에 따라 빈곤가계는 부부취업가계, 남편취업·부인무직가계, 남편무직·부인취(부)업가계, 부부무직가계, 여성가구주취(부)업가계, 여성가구주무직가계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2) 소비문제

소비문제에 대해서는 위의 이론적 근거들을 기초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에 관련된 주요개념을 정의하면 아래와 같다.

① 가치지향

빈곤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인간의 공통문제의 해결에 관련된, 인간의 행동과 사고의 끊임없는 흐름에 순서를 매기고 방향을 지우는 복합적이며 일정하게 유형화된 원리이다. 활동지향, 시간지향, 인간-자연지향으로 세분된다.

② 소비자기능

소비자가 시장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의 화폐에 대한 충분한 가치를 실현하는데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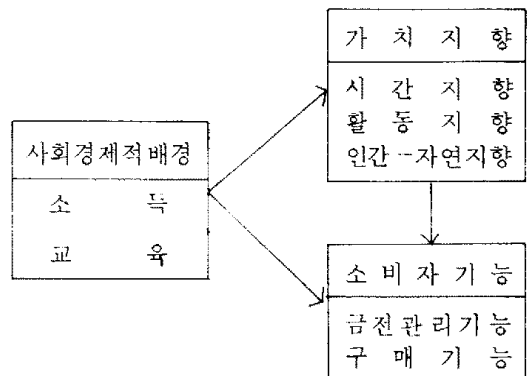


그림 1.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도시주부의 가치지향 및 소비자기능.

요한 기능이며 금전관리(예산 및 건축) 기능과 구매기능으로 구분된다.

3) 사회경제적 배경

가치지향과 소비자기능에 관련된 사회경제적 배경변수로 소득과 교육을 선정한다.

이로부터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Ia. 소득과 교육에 따라 주부의 시간지향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Ib. 소득과 교육에 따라 주부의 활동지향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Ic. 소득과 교육에 따라 주부의 인간-자연지향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IIa. 소득과 교육에 따라 주부의 금전관리기능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IIb. 소득과 교육에 따라 주부의 구매기능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IIIa. 주부의 시간지향, 활동지향 및 인간-자연지향에 따라 주부의 금전관리기능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IIIb. 주부의 시간지향, 활동지향 및 인간-자연지향에 따라 주부의 구매기능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III. 연 구 방 법

1) 연구절차

조사대상은 서울시와 인천시에 거주하는 중간소득층주부 118명과 저소득층주부 124명으로 총 242명이다. 중간소득층주부는 서울과 인천의 10개 중·고등학교 교사의 부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저소득층주부는 서울과 인천의 4개 저소득층지역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두 집단의 표본을 경제적 요인과 교육이외에는 가능한 한 비슷하게 하기위해 연령과 저소득층지역특성 및 대상학교의 특성을 통제하였다. 중간소득층의 경우에는 주부의 취업이 그 가계소득수준을 크게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비취업주부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본조사에서 선정한

저소득층지역은 서울의 상월곡동 산 1번지(총380세대)와 신림 10동 산 79번지(총 789세대), 인천의 만석동 43번지(총 676세대)와 십정동 25번지(총 895세대)의 네 지역으로서, 조사당일 면접가능한 주부를 각각 31명, 30명, 32명, 31명씩 추출하였다.

본조사를 하기전에 예비조사를 1986년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서울과 인천의 저소득층주부와 중간소득층주부 각각 30명씩 총 60명에 대해서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본조사용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본조사는 1986년 4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중간소득층주부에게는 질문지를 배포하여 기입토록 하고 누락사항을 점검한 후에 회수하였다. 그리고 저소득층주부는 본연구자와 인하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졸업생 및 재학생 5명으로 구성된 면접원들이 직접 면접조사를 하였으며 면접하기 전에 가구주의 직업을 확인한 후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공식부문 종사자는 면접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자료의 분석에 있어서, 저소득층가계의 경제적곤경도 및 부인과 자녀의 경제적 기여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백분율로 비교하였다. 사회경제적변수에 따른 가치지향과 소비자기능의 차이 및 상호작용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2원분산분석(ANOVA)을 하였으며, 두 변수가 가치지향과 소비자 기능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 중분류분석(MCA)을 하였다. 그리고 각 가치지향의 범주에 따른 소비자기능의 차이 및 상호작용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3원분산분석(ANOVA)을 하였으며, 각 가치지향이 소비자기능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중분류분석(MCA)을 하였다.

2) 조사도구

(1) 경제적곤경도 및 부인과 자녀의 경제적기여도

저소득층가계의 경제적곤경도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여 소비가능자원을 파악한 후 그

가계가 지닌 상황적 요소로서 가족원수와 빈곤 가계유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먼저 소비가능자원의 평가를 위해서 소득은 남편 소득, 부인소득, 자녀소득 등의 근로소득과 결혼한 자녀 또는 친지들의 보조인 사적이전소득, 재산소득 및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연간소득을 구한 다음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가계소득을 구하였다. 재산은 저축, 보험, 증권, 계, 재산평가액 등의 동산과 자가평가액 등의 부동산을 합하여 구했다. 그리고 순재산은 재산에서 부채액을 감산하여 구하였다. 다음으로 상황적요소로서 가족원수를 고려하기 위해 월평균가계소득을 가족원수로 나누어 월평균가구원 1인당소득을 구하여 비교기준으로 했다. 또한 부인과 자녀의 경제적 기여도는 가계소득에서 부인소득 또는 자녀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구했다.

(2) 가치지향

가치지향은 시간지향, 활동지향, 인간-자연지향의 세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척도를 구성하였다. 척도의 내용은 Robinson과 Shaver(1980)가 Kluckhohn과 Strodtbeck(1961)의 가치지향개념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24개 문항 중 위의 세 하위영역에 관련된 10개 문항과 Strumpel(1973)의 가치척도 중에서 활동지향과 관련된 2개 문항으로부터 시간지향의 3문항, 활동지향의 5문항, 인간-자연지향의 4문항을 각각 선정하였다. 척도의 각 문항은 서로 대비된 가치지향을 나타내는 두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둘 중에서 응답자가 자신의 생각에 보다 가까운 것을 하나 고르게 되어 있다.

시간지향척도는 'T1. 재사의 혁신에 대한 태도', 'T2. 자녀교육에 대한 태도', 'T3. 변화에 대한 생활철학'에 대한 것으로 시간지향이 미래지향적이면 1점을 주었고 과거지향적이면 0점을 주었다. 즉 T1, T3는 값이면 0점을, 읠이면 1점을 주었고 T2는 값이면 1점, 읠이면 0점을 주었다. 시간지향척도의 총점은 0점에서 3점을 갖게 되는데 그 중간점인 1.5를 기준으로 1.5 이상은 미래지

향적, 1.5 미만은 과거지향적인 것으로 보기로 한다.

활동지향척도는 'A1. 일에 대한 생활방식', 'A2. 집안일에 대한 생활방식', 'A3. 여가에 대한 생활방식', 'A4. 일에 도전하는 생활방식', 'A5. 성공요인에 대한 신념'에 대한 것으로 활동지향이 목표지향적이면 1점을 주었고 욕구충족적이면 0점을 주었다. 즉 A1, A2, A4, A5는 값이면 0점, 읠이면 1점을 주었고, A3은 값이면 1점을, 읠이면 0점을 주었다. 활동지향척도의 총점은 0점에서 5점을 갖게 되는데 그 중간적인 2.5를 기준으로 하여 2.5 이상은 목표지향적, 2.5 미만은 욕구충족적인 것으로 보기로 한다.

인간-자연지향척도는 'N1. 상황대처에 대한 신념', 'N2. 자연재해의 통제에 대한 신념', 'N4. 인간의 수명에 대한 신념'에 대한 것으로 인간-자연지향이 자연정복적이면 1점을 주었고 자연복종적이면 0점을 주었다. 즉 N1, N4는 값이면 1점, 읠이면 0점을 주었고, N2, N3는 값이면 0점, 읠이면 1점을 주었다. 인간-자연지향척도의 총점은 0점에서 4점을 갖게 되는데 그 중간점인 2.0을 기준으로 하여 2.0 이상은 자연정복적, 2.0 미만은 자연복종적인 것으로 보기로 한다.

이상의 가치지향척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3) 소비자기능

소비자기능은 금전관리기능과 구매기능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 척도를 구성하였다.

금전관리기능척도는 'M1. 가계부 기록', 'M2. 절약계획', 'M3. 예산생활', 'M7. 결산 및 평가', 'M8. 구매시기 조절'의 예산기능에 관한 것과 'M4. 효용을 고려한 지출결정', 'M5. 특별수입 사용시 긴급도 고려', 'M6. 소비의 긴급도 고려'의 간축기능에 관한 것으로 모두 8개 문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척도이다. 이중 M1, M2, M3, M6, M7, M8은 '항상 그렇다'에 4점, '대체로 그런 편이다'에 3점, '그저 그렇다'에 2점, '거의 그렇지 않다'에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0점을 주었고, M4, M5는 그 반대방향

한 국가정관리학회지

표 1. 가치지향척도

영역	문항
<p><u>시간지향</u></p> <p>T1. 제사의 혁신에 대한 태도</p> <p>T2. 자녀 교육에 대한 태도</p> <p>T3. 변화에 대한 생활철학</p>	<p>갑 : 제사의식은 우리 조상들이 해오던 대로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을 : 제사의식은 시대에 맞추어 보다 간소하게 고쳐나가야 한다.</p> <p>갑 : 자녀들에게는 상차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필요한 것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 을 : 자녀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조상의 말씀을 잘 배우고 따르도록 가르쳐야 한다.</p> <p>갑 : 새로운 변화보다 전통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행복할 것이다. 을 : 새로운 변화는 작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발전을 가져오는 좋은 것이다.</p>
<p><u>활동지향</u></p> <p>A1. 일에 대한 생활방식</p> <p>A2. 집안일에 대한 생활방식</p> <p>A3. 여가에 대한 생활방식</p> <p>A4. 일에 도전하는 생활방식</p> <p>A5. 성공요인에 대한 신념</p>	<p>갑 : 그냥 두어도 웬만큼 될 일이면 구태여 힘들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을 : 그냥 두어도 웬만큼 될 일이라도 더 잘 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대까지 노력해야 한다.</p> <p>갑 : 집안일을 웬만큼 하고 시간이 남으면 그냥 쉬거나 이웃집에 놀러가기도 하는 것이 좋다. 을 : 집안일을 웬만큼 하고 시간이 남으면 다른 일거리(대청소, 뜨게질, 부업, 취미활동 등)를 찾아 바쁘게 지내는 것이 좋다.</p> <p>갑 : 시간과 돈의 여유가 있다면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다. 을 : 시간과 돈의 여유가 있다면 그냥 쉬거나 생활을 즐기는데 쓰고 싶다.</p> <p>갑 : 나는 가능하면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만 하면서 살고 싶다. 을 : 나는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배워서 해보고 싶다.</p> <p>갑 : 기술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운이 좋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을 :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기술과 능력이 부족한 탓이다.</p>
<p><u>인간-자연지향</u></p> <p>N1. 상황대처에 대한 신념</p> <p>N2. 자연재해의 통제에 대한 신념</p> <p>N3. 재해방지에 대한 신념</p> <p>N4. 인간의 수명에 대한 신념</p>	<p>갑 :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마음먹기에 따라 혼자 힘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을 :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인간의 힘으로만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p> <p>갑 : 태풍이나 홍수 또는 가뭄으로 흉년이 드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을 : 태풍이나 홍수 또는 가뭄으로 흉년이 드는 것은 인간의 기술과 노력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p> <p>갑 : 이 세상에는 사람의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은데 도둑이나 화재를 당하는 것도 그중의 하나이다. 을 : 도둑이나 화재와 같은 사고는 당하는 사람의 잘못이므로 미리 주의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이다.</p> <p>갑 : 새로운 약품의 발명과 의학의 발전으로 사람은 점점 오래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을 :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수 없는 것이다.</p>

표 2. 소비자기능척도

영역	문항
<p>금전관리기능</p> <p>M1. 가계부 기록</p> <p>M2. 절약계획</p> <p>M3. 예산생활</p> <p>M4. 효용을 고려한 지출결정</p> <p>M5. 특별수입 사용시 긴급도 고려</p> <p>M6. 소비의 긴급도 고려</p> <p>M7. 결산 및 평가</p> <p>M8. 구매시기 조절</p>	<p>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매일 가계부에 적는다.</p> <p>나는 버스를 타기 전에 토큰이나 회수권을 미리 사둔다.</p> <p>한달 생활비를 어느 정도 쓸 것인가를 미리 정해놓고 그 액수를 넘지 않도록 한다.</p> <p>쓸모가 많지 않은 옷이나 물건인 줄 알면서도 사는 경우가 있다.</p> <p>예상치 못한 돈이 생기면 사고 싶었던 옷을 사입거나 놀러가는 데 쓴다.</p> <p>돈을 쓸 때는 그것이 지금 꼭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쓴다.</p> <p>한 달 동안 쓴 돈을 매월 결산해 본다.</p> <p>야채나 옷 종류는 하루 중 또는 일년중 제일 값이 쌀 때를 이용하여 산다.</p>
<p>구매기능</p> <p>P1. 광고에 대한 태도</p> <p>P2. 매체정보원의 활용</p> <p>P3. 인적정보원의 활용</p> <p>P4. 비교탐색 행동</p> <p>P5. 표찰확인</p> <p>P6. 보증의 고려</p> <p>P7. 가격홍정 행동</p> <p>P8. 구매후 평가</p> <p>P9. 불만처리 행동</p>	<p>텔레비전, 신문, 잡지등에 나오는 광고 내용은 믿을 만하다.</p> <p>신문이나 TV, 잡지 등에서 알려주는 시장이나 상품에 관한 정보를 잘 보아둔다.</p> <p>물건을 사러가기 전에 그것을 잘 아는 친구나 이웃사람들에게 그 물건의 가격과 품질, 종류 등에 대해 물어본다.</p> <p>옷이나 신발을 살 때는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기 위해 미리 여러 상점을 돌아 다녀 본다.</p> <p>우유, 빵, 쏘세지 등을 살 때는 날짜와 중량, 성분 등을 확인한다.</p> <p>가전제품(텔레비전, 보온밥통 등)을 살 때는 고장날 경우에 대비하여 애프터서비스의 약속 또는 보증서를 받아둔다.</p> <p>정찰제가 아닌 경우는 상인이 부르는 가격대로 산다.</p> <p>구입한 물건을 사용해 보면서 구입을 잘 한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p> <p>구입한 물건이 불량품일 경우에는 상인에게 가서 다른 물건으로 바꾸거나 수선했다.</p>

으로 0점에서 4점을 주었다.

척도를 정교화시키기 위해 각 개별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편향도(skewness), 첨도(kurtosis) 및 범위를 통해서 분포를 확인하였으나 정상분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8문항을 단순하게 합산하여 0점에서 32점까지 갖도록 했다. 척도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Troelstrup과 Hall(1978, pp.110-111)의 금전관리기능척도와 정진화(1985) 및 Turner(1977)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한편 구매기능척도는 'P1. 광고에 대한 태도', 'P2. 매체정보원의 활용', 'P3. 인적정보원의 활용', 'P4. 비교탐색행동', 'P5. 표찰확인', 'P6. 보증의 고려', 'P7. 가격홍정행동', 'P8. 구매후 평가', 'P9. 불만처리행동'에 관한 것으로 모두 9개 문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척도이다. 이중 P2, P3, P4, P5, P6, P8, P9는 '항상 그렇다'에 4점, '대체로 그런 편이다'에 3점, '그저 그렇다'에 2점, '거의 그렇지 않다'에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0점을 주었고, P1, P7은 그 반대방향으로 0점에서 4점을 주었다.

금전관리기능척도와 같은 방식으로 각 개별문항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 정상분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9문항을 단순하게 합산하여 0점에서 36점까지 갖도록 했다. 척도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Troelstrup과 Hall(1978), 이기춘(1985), 윤정혜(1981)의 연구를 참고로 하였다.

이상의 소비자기능척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4) 사회경제적 변수

소득은 저소득층집단과 중간소득층집단으로 나누었다. 저소득층은 서울과 인천의 저소득층지역에서 표집된 집단이며 중간소득층은 서울과 인천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의 부인집단이다. 교육수준은 ① 무학 ② 국퇴 ③ 국졸 ④ 중퇴 ⑤ 중졸 ⑥ 고퇴 ⑦ 고졸 ⑧ 전문대졸·대퇴 ⑨ 대졸이상의 9개범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그리고 분산분석과 중분류분석을 위해서 무학(①), 국졸이하(②, ③), 중·고졸(④, ⑤, ⑥, ⑦), 대학

이상(⑧, ⑨)의 4집단으로 재구성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소득문제

저소득층가계의 경제적 곤경도를 중간소득층가계와 비교하여 표 3에서 보면, 저소득층가계의 월평균가구원 1인당소득은 중간소득층가계의 3분의 1정도인 56,029원으로 1986년 현재 근로소득면세점인 57,083원이하이며 순재산은 중간소득층가계의 10분의 1에 미달하는 397만원이다. 따라서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을 구분하는 뚜렷한 차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사대상 저소득층가계의 대부분이 무허가주택을 소유 또는 임대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저소득층가계의 경제적 곤경도를 빈곤가계유형에 따라 비교하기 전에 빈곤가계유형에 따른 전반적 특성을 표 4에서 보기로 한다. 남성가구가계중 부부취업가계가 부부의 평균연령이 모두 30대로서 가장 젊고 교육수준은 빈곤가계 중에서는 높은 편이며 평균가계소득은 30만원이상으로 가장 높다. 그리고 부부무직가계는 부부의 평균연령이 모두 50대이며, 교육수준은 가장 낮고 가족원수는 많은 편이나 소득원수는 평균 1명이 하이고, 가계소득은 남편이 취업한 가계 다음으로 높다. 한편 여성가구주가계의 경우는 대체로 부인의 평균연령이 45세이상으로 부부무직가계 다음으로 높고 평균교육년수는 3년정도이며 남성가구주가계 보다 가족원수와 가계소득이 적은 편이다.

먼저 빈곤가계유형에 따라 경제적 곤경도를 표 5에서 비교해 보겠다.

첫째, 빈곤가계유형에 따라 소득을 비교해 보면, 소득이 가장 많은 가계는 부부취업가계로서 가구원 1인당소득이 68,816원이며 여성가구주취업가계와 남편취업부인무직가계도 5만원이상이며, 여성가구주무직가계, 부부무직가계, 남편무직부인취(부)업가계는 5만원미만이다. 즉 부부취(부)

표 3. 저소득층가계와 중간소득층가계의 경제적 곤경도 비교

(단위 : 원, %)

소득 및 재산	저소득층 가계 (A) (n=124)	중간소득층 가 계 (B) (n=118)	A/B
가구원 1인당 소 득 ^{a)}	56,029	169,306	33.1
순 재 산 ^{b)}	3,967,734	49,707,966	8.0

^{a)}월평균 가구원 1인당소득임. (N=242)

^{b)}순재산=재산-부채임.

업가계의 소득수준이 가장 높고 여성가구주부직가계에 비해 여성가구주취(부)업가계의 소득수준이 상당히 높으며 남편이 실직한 가계의 소득수준이 낮은 편이다. 특히 남편의 직업은 없지만 부인의 소득이 있는 남편부직·부인취(부)업가계는 부인의 소득이 없는 부부무직가계와 여성가구주무직가계보다도 소득수준이 낮다.

둘째, 빈곤가계유형에 따라 재산을 비교해 보면, 부부무직가계의 순재산이 880만원으로 가장 높고 여성가구주취(부)업가계가 710만원으로 그 다음이며, 부부무직가계를 제외한 남성가구주가계

표 4. 빈곤가계유형에 따른 부부의연령, 교육, 가구원수, 소득원수 및 가계소득의 평균

변 수	총평균	부부취업 가 계	남편취업· 부인무직가계	남편무직·부 인취(부)업가계	부부무직 가 계	여성가구주 취(부)업가계	여성가구주 무직가계
N	124	51	43	11	8	6	5
연 령(세)							
남편	41.6	38.4	44.1	49.9	58.5	-	-
부인	41.0	33.0	39.3	45.9	51.6	46.7	46.6
교육년수(년)							
남편	7.0	6.9	6.7	9.2	5.3	-	-
부인	3.8	4.2	3.6	4.3	1.8	3.8	3.0
가족원수(명)	5.2	5.1	5.2	5.7	5.6	3.8	4.8
소득원수(명)	1.5	2.0	1.3	1.1	0.9	1.2	0.8
가계소득 ^{a)} (원)	268,113	320,373	259,160	193,460	201,880	174,167	195,000

^{a)}월평균 가계소득임.

(N= 124)

표 5. 빈곤가계유형에 따른 경제적 곤경도 비교

(단위 : 원, %)

소득 및 재산	부부취업가계	남편취업· 부인무직가계	남편무직·부 인취(부)업가계	부부무직가계	여성가구주 취(부)업가계	여성가구주 무직가계
가 구 원 1인당 소득	68,816 (100) ^{a)}	51,840 (75)	34,680 (50)	36,280 (53)	56,667 (82)	39,420 (57)
순 재 산	3,323,392 (100)	3,783,400 (114)	3,301,820 (99)	8,787,500 (264)	7,143,333 (215)	2,068,000 (62)

^{a)}() 안의 숫자는 부부취업가계를 기준으로 한 각 유형의 상대적 비율임.

(N=124)

표 6. 빈곤가계유형에 따른 가계소득요소의 구성

(단위 : %)

소득요소	부부취업가계	남편취업· 부인무직가계	남편무직· 부인취(부)업가계	부부무직가계	여성가구주 취(부)업가계	여성가구주 무직가계
남편소득	72.0	86.9	9.1	0.0	-	-
부인소득	26.3	1.1	80.6	0.0	92.9	0.0
자녀소득	1.5	11.4	3.5	63.7	7.1	51.8
사적이전소득	0.0	0.0	6.8	32.0	0.0	40.0
재산소득	0.2	0.0	0.0	0.0	0.0	1.6
기타	0.0	0.0	0.0	4.3	0.0	6.7
계	100.0	100.1 ^{a)}	100.0	100.0	100.0	100.1 ^{a)}

^{a)} 반올림으로 인하여 100%가 넘음.

(N=124)

는 330만원에서 380만원 정도로 낮고 여성가구주무직가계가 207만원으로 가장 낮다. 부부무직가계와 여성가구주취(부)업가계가 다른 유형보다 재산이 많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은 보다 높은 소득수준으로부터 남편의 실직,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빈곤계층으로 내려오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최다수 빈곤가계유형인 부부취업가계를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동시에 고려하여 상대적인 경제적 곤경도를 비교해보면, 소득과 재산이 모두 부부취업가계보다 낮은 가계는 남편무직·부인취(부)업가계와 여성가구주무직가계로서 이들이 경제적 곤경도가 가장 심각한 빈곤가계유형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빈곤가계유형에 따라 남성가구주위의 부인과 자녀의 경제적 기여도를 표 6에서 비교해 보겠다. 부부취업가계의 부인소득이 가계소득의 26%임에 비해 남편무직·부인취(부)업가계와 남편이 사망한 여성가구주취(부)업가계의 부인소득은 각각 81%와 93%로서 대단히 높다. 한편 부부무직가계와 남편이 사망한 여성가구주무직가계의 경우는 부인소득은 전혀 없지만 자녀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합이 90% 이상이다. 따라서 남편의 실직·질병·사망 등의 이유로 남편소득이 없는 경우, 부인이 취업한 가계는 가계소득의 대부

표 7. 소득별 조사대상자의 연령 및 교육

(N=242)

변수	저소득층집단 주부 (%)	중간소득층집단 주부 (%)
	(N=124)	(N=118)
연령		
30~39세	48.4	43.2
40~49세	31.5	43.2
50~57세	20.2	13.6
계	100.0	100.0
평균연령(세)	41	40
교육		
무학	27.4	-
국졸이하	49.2	0.8
중·고졸	23.4	54.2
대학이상	-	44.9
계	100.0	100.0
평균교육년수(년)	3.8	12.4

분이 부인소득이며 부인이 취업하지 않은 가계는 가계소득이 미혼자녀소득과 출가자녀 또는 친척의 보조로 구성된 사적이전소득이 대부분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저소득층가계는 중

표 8. 가치지향과 소비자기능의 분포

(N=242)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편향도	범 위
가치지향				
시간지향 (3점척도)	2.44	0.80	-1.35	3.00
활동지향 (5점척도)	3.76	1.28	-0.97	5.00
인간-자연지향 (4점척도)	2.53	1.25	-0.34	4.00
소비자 기능				
금전관리기능 (32 점척도)	21.45	4.40	-0.29	25.00
구매기능 (36 점척도)	24.47	5.73	-0.94	30.00

간소득층가계와 비교해 볼 때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있어서도 심한 격차를 보인다. 그리고 빈곤가계유형 중 남편무직·부인취(부)업가계와 여성가구주무직가계가 경제적 곤경의 심각성이 가장 크다. 또한 남편무직·부인취(부)업가계와 여성가구주취(부)업가계는 부인의 경제적 기여도가 아주 크며 부부무직가계와 여성가구주무직가계는 미혼자녀의 경제적 기여도가 상당히 크다.

2) 소비문제

연구문제의 분석에 앞서서 소득수준별로 조사 대상자의 주요특성을 표 7 에서 살펴 보겠다. 저소득층집단주부와 중간소득층집단주부의 평균연령은 각각 41 세와 40 세로서 비슷하며, 30 대 · 40 대 · 50 대에 걸쳐 비슷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수준을 비교해보면 저소득층집단주부는 대부분 국졸이하이고 평균교육년수는 3.8 년인 반면, 중간소득층집단주부는 대부분 중 · 고졸이상이고 평균교육년수는 12.4 년으로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1)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가치지향

주요변수인 가치지향의 분포가 표 8 에 제시되어 있으며, 하위영역별 가치지향의 평균이 중간

표 9. 소득 및 교육에 따른 가치지향점수의 평균

(N=242)

변 수	시간지향	활동지향	인간-자연지향
소 득			
저 소득층	2.22	3.65	1.99
중간소득층	2.67	3.87	3.09
교 육			
무 학	1.94	3.35	1.79
국 졸 이 하	2.18	3.52	1.92
중 · 고 졸	2.70	3.83	2.85
대 졸 이 상	2.60	4.19	3.15

점이상으로서 대체로 도시주부의 시간지향은 미래지향적이며, 활동지향은 목표지향적이고, 인간-자연지향은 자연정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표 9 를 보면 소득과 교육이 높아질수록 시간지향, 활동지향 및 인간-자연지향의 평균점수는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먼저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라 시간지향을 분산 분석해 보면, 시간지향은 교육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F(3,236) = 4.89, p < .01$. 그리고 소득과 교육의 상호작용효과는 없으며 두 변수가 시간지향에 미친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F(4,236) = 9.146, p < .001$. 다른 변수를 통제 한 후에 각 독립변수가 시간지향에 미친 독립적인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 중분류분석한 결과를 표 10에서 보면, 교육의 영향력이 소득보다 매우 크다, $\beta = .32, \beta = .06$. 이로 미루어 볼 때, 주부의 변화에 대한 생활철학은 저소득층집단과 중간소득층집단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이 미래지향적이며 주부가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미래지향적인 시간지향을 갖게 된다고 본다. 또한 소득과 교육은 시간지향을 13.4% 설명해준다. 따라서 가설 Ia는 교육의 경우에만 채택된다.

둘째로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라 활동지향을 분산분석해 보면, 활동지향은 소득과 교육에 따라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F(1,236) = 5.676, p < .05, F(3,236) = 5.492, p < .05$. 그리고 소득

표 10. 소득 및 교육에 따른 가치지향의 중분류분석 (N=242)

변수	N	통제되지 않은 평균	통제된 평균	통제된 Eta Bata
(시간지향)				
총평균 = 2.44				
소득			0.28	0.06
저소득층	124	2.22	2.39	
중간소득층	118	2.67	2.49	
교육			0.36	0.32
무학	34	1.94	1.99	
국졸이하	62	2.18	2.23	
중·고졸	93	2.70	2.68	
대졸이상	53	2.61	2.55	
Multiple R ²				0.134
(활동지향)				
총평균 = 3.76				
소득			0.09	0.25
저소득층	124	3.65	4.07	
중간소득층	118	3.87	3.43	
교육			0.22	0.42
무학	34	3.35	3.04	
국졸이하	62	3.52	3.21	
중·고졸	93	3.83	3.96	
대졸이상	53	4.19	4.52	
Multiple R ²				0.072
(인간-자연지향)				
총평균 = 2.53				
소득			0.44	0.26
저소득층	124	1.99	2.21	
중간소득층	118	3.09	2.87	
교육			0.43	0.23
무학	34	1.80	2.11	
국졸이하	62	1.92	2.23	
중·고졸	93	2.85	2.72	
대졸이상	53	3.15	2.82	
Multiple R ²				0.213

*소득과 교육의 F비는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함.

과 교육의 상호작용효과는 없으며, 두 변수가 활동지향에 미친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F(4,236) = 4.595, p < .001. 다른 변수를 통제한 후에 각 독립변수가 활동지향에 미친 독립적인 영향력을 표 10에서 비교해보면, 교육의 영향력이 소득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beta = .42$, $\beta = .25$. 그리고 교육을 통제했을 경우, 저소득층주부가 중간소득층주부보다 더 목표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저소득층주부는 상층계급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강한 성취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주부가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목표지향적인 활동지향을 갖게 된다고 본다. 소득과 교육은 활동지향을 7.2% 설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가설 Ib는 채택된다.

세째로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라 인간-자연지향을 분산분석해 보면, 인간-자연지향은 소득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F(1,236) = 7.125, p < .01. 그리고 소득과 교육의 상호작용효과는 없으며, 두 변수가 인간-자연지향에 미친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F(4,236) = 15.592, p < .001. 다른 변수를 통제한 후에 각 독립변수가 인간-자연지향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표 10에서 비교해보면, 소득의 영향력이 교육보다 약간 더 크게 나타났다, $\beta = .26$, $\beta = .23$. 이로 미루어 볼 때, 저소득층주부는 중간소득층주

표 11. 소득 및 교육에 따른 소비자기능점수의 평균 (N=242)

변수	금전관리기능			구매기능
	예산기능	건축기능	합계	
소득				
저소득층	9.04	10.87	19.91	22.37
중간소득층	13.88	9.19	23.07	26.67
교육				
무학	7.06	11.53	18.59	20.32
국졸이하	9.27	10.58	19.85	22.61
중·고졸	12.87	9.61	22.48	25.89
대졸이상	14.09	9.25	23.34	26.79

부에 비해 자연의 위력에 대해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연복종적인 가치지향을 지니고 있다. 소득과 교육은 인간-자연지향을 21.3% 설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가설 Ic는 소득의 경우에만 채택된다.

(2)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소비자기능

주요변수인 소비자기능의 분포가 표 8에 제시되어 있으며 주부의 금전관리기능과 구매기능의

표 12. 소득 및 교육에 따른 소비자기능의 중분류분석

		(N=242)			
변 수	N	통제되지않은 평균	통 제 된 평균	Eta Beta	
(금전관리기능)					
총평균=21.45					
소 득				0.36	0.14
저 소 득 층	124	19.91	20.84		
중 간 소 득 층	118	23.07	22.09		
교 육				0.39	0.28
무 학	34	18.59	19.20		
국 출 이 하	62	19.85	20.44		
중 · 고 졸	93	22.48	22.23		
대 출 이 상	53	23.34	22.70		
Multiple R ²					0.162
(구 매 기 능)					
총평균=24.47					
소 득				0.38	0.20
저 소 득 층	124	22.37	23.37		
중 간 소 득 층	118	26.67	25.63		
교 육				0.40	0.26
무 학	34	20.33	21.43		
국 출 이 하	62	22.62	23.68		
중 · 고 졸	93	25.90	25.44		
대 출 이 상	53	26.80	25.64		
Multiple R ²					0.175

* 소득과 교육의 F비는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함.

평관이 각 척도의 중간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표 11을 보면 소득과 교육이 높아질수록 금전관리기능과 구매기능의 평균점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금전관리기능에 있어서는 소득과 교육이 높아질수록 예산기능의 평균점수는 올라가지만 건축기능의 평균점수는 내려가는 경향을 보인다.

먼저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라 금전관리기능을 문산분석해 보면, 금전관리기능은 소득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교육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F(1,236) = 1.974, p = 0.161, F(3,236) = 3.120, p < .05$. 그런데 금전관리기능을 예산기능과 건축기능으로 구분하여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라 분산분석을 해 볼 경우, 예산기능은 소득과 교육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F(1,236) = 12.991, p < .001, F(3,236) = 6.756, p < .001$. 즉 소득과 교육이 높아질수록 예산기능은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건축기능은 소득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저소득층주부가 중간소득층주부보다 건축기능이 높다, $F(1,236) = 16.687, p < .001$. 즉 저소득층주부의 건축기능이 높은 것은 저소득이라는 제약 아래서 생계유지와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건축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렇게 볼 때, 소득에 따라 금전관리기능의 차이가 없는 것은 소득의 영향이 예산기능과 건축기능에 있어서 반대방향으로 작용하여 상쇄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고 소득과 교육의 상호작용효과는 없으며, 두 변수가 금전관리기능에 미친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F(4,236) = 11.425, p < .001$. 다른 변수를 통제한 후에 각 독립변수가 금전관리기능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표12에서 비교해보면, 교육의 영향력이 소득의 2 배정도이다, $\beta = .28, \beta = .14$. 그리고 소득과 교육은 금전관리기능을 16.5% 설명해준다. 따라서 가설 IIa는 교육수준에 있어서만 채택된다. 다음으로 소득과 교육에 따라 구매기능의 차이에 대해 분산분석해 보면, 구매기능은 소득과 교육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F(1,236)$

표 13. 가치지향에 따른 소비자기능점수의 평균
(N=242)

변 수	금전관리기능			구매기능
	예산기능	건축기능	합계	
시간지향				
1(0~1 점)	8.52	10.48	19.00	19.06
2(2 점)	11.73	10.27	22.00	25.36
3(3 점)	11.87	9.86	21.72	25.21
활동지향				
1(0~2 점)	9.66	9.29	18.95	22.71
2(3 점)	10.43	10.18	20.65	24.50
3(4 점)	11.05	10.21	21.27	24.80
4(5 점)	12.99	10.21	23.20	25.00
인간-자연지향				
1(0~1 점)	8.71	10.64	19.36	20.93
2(2 점)	10.48	10.35	20.83	23.50
3(3 점)	12.23	9.67	21.89	26.77
4(4 점)	13.64	9.64	23.28	26.26

= 3.870, $p = .05$, $F(3,236) = 3.173$, $p < .05$. 즉 소득과 교육이 높아질수록 구매기능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소득과 교육의 상호작용효과는 없으며, 두 변수가 구매기능에 미친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F(4,236) = 12.529$, $p < .001$.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각 독립변수가 구매기능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표12에서 비교해보면, 교육의 영향력이 소득계층보다 약간 크다, $\beta = .26$, $\beta = .20$. 그리고 소득과 교육은 구매기능을 17.5% 설명해준다. 이상에서 볼 때, 저소득층주부의 구매기능이 중간소득층주부보다 낮은 것은 저소득의 제약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육수준이 중간소득층주부보다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가설 IIb는 채택된다.

(3) 가치지향에 따른 소비자기능

가치지향에 따른 금전관리기능과 구매기능 점수의 평균을 표13에서 보면, 활동지향과 인간-자연지향 점수가 높아질수록 금전관리기능과 구

매기능의 평균점수는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시간지향에 있어서는 시간지향점수가 중간정도일 때 금전관리기능과 구매기능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금전관리기능을 예산기능과 건축기능으로 구분하여 가치지향에 따라 점수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예산기능의 경우는 시간지향, 활동지향 및 인간-자연지향점수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건축기능의 경우는 활동지향에 따라서만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

먼저 각 가치지향에 따라 금전관리기능을 분석해 보면, 금전관리기능은 활동지향과 인간-자연지향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F(3,201) = 5.852$, $p < .01$, $F(3,201) = 4.886$, $p < .01$. 즉 금전관리기능은 활동지향이 목표지향적이거나 인간-자연지향이 자연정복적일수록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금전관리기능을 예산기능과 건축기능으로 나누어 분산분석해 보면, 예산기능은 인간-자연지향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인간-자연지향이 자연정복적일수록 예산기능이 높다, $F(3,201) = 11.405$, $p < .001$. 그리고 건축기능은 활동지향과 인간-자연지향에 따라서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활동지향이 자연정복적일수록 건축기능이 높다, $F(3,201) = 4.617$, $p < .01$, $F(3,201) = 5.136$, $p < .01$. 즉 각 가치지향 중에서 활동지향의 영향은 건축기능에서만 나타나며 인간-자연지향의 영향은 예산기능과 건축기능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는데, 자연정복적일수록 예산기능이 높고 자연정복적일수록 건축기능이 높다. 그리고 각 가치지향의 상호작용효과는 없으며 가치지향 변수들이 금전관리기능에 미친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F(8,201) = 6.869$, $p < .001$. 다른 변수를 통제한 후에 각 가치지향이 금전관리기능에 미친 독립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 중분류분석한 결과를 표14에서 보면, 활동지향과 인간-자연지향의 영향력이 시간지향보다 2배이상 크다, $\beta = .26$, $\beta = .25$, $\beta = .12$. 또한 각 가치지향은 금전관리기능을 19.9% 설명해준다. 따라서 가설 IIIa는 활동지향과 인간-

표 14. 시간지향, 활동지향, 인간-자연지향에 따른 소비자기능의 중분류분석 (N=242)

변수	N	통제되지 않은 평균	Eta 평균	통제된 Beta
(급진관리기능)				
총평균 = 21.45				
시간지향			0.22	0.12
1(0~1점)	31	19.00		20.14
2(2점)	66	22.00		21.98
3(3점)	145	21.72		21.49
활동지향			0.34	0.26
1(0~2점)	41	19.85		19.62
2(3점)	40	20.60		20.80
3(4점)	75	21.27		21.21
4(5점)	86	22.90		22.83
인간-자연지향			0.34	0.25
1(0~1점)	59	19.36		19.90
2(2점)	54	20.83		21.02
3(3점)	57	21.89		21.79
4(4점)	72	23.28		22.77
Multiple R ²				0.199
(구 매 기 능)				
총평균 = 24.47				
시간지향			0.36	0.29
1(0~1점)	31	19.07		20.30
2(2점)	66	25.37		25.59
3(3점)	145	25.22		24.85
활동지향			0.14	0.05
1(0~2점)	41	22.71		24.00
2(3점)	40	24.50		24.94
3(4점)	75	24.80		24.67
4(5점)	86	25.00		24.30
인간-자연지향			0.41	0.35
1(0~1점)	59	20.94		21.30
2(2점)	54	23.50		24.10
3(3점)	57	26.77		26.45
4(4점)	72	26.27		25.78
Multiple R ²				0.247

* 시간지향, 활동지향 및 인간-자연지향의 F비는 모두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함.

자연지향의 경우에만 채택된다.

다음으로 각 가치지향에 따라 구매기능을 분산 분석해 보면, 구매기능은 시간지향과 인간-자연지향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F(2,201) = 11.356, p < .001, F(3,201) = 10.776, p < .001$. 즉 시간지향점수가 중간일 경우에 구매기능이 가장 높으며, 인간-자연지향점수가 올라갈수록 구매기능이 높아지다가 인간-자연지향점수가 가장 커지면 오히려 구매기능이 약간 낮아진다. 그리고 각 가치지향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으며, 가치지향변수들이 구매기능에 미친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F(8,201) = 9.376, p < .001$. 다른 변수를 통제한 후에 각 가치지향이 구매기능에 미친 영향력을 표14에서 비교해보면, 인간-자연지향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시간지향의 영향력이 활동지향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beta = .35, \beta = .29, \beta = .05$. 즉 주부가 자연정보적인 가치지향을 지닐수록 시장환경에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기능이 높아진 것이라고 본다. 각 가치지향은 구매기능을 24.7% 설명해준다. 따라서 가설 IIIb는 인간-자연지향과 시간지향의 경우에만 채택된다.

(4) 사회경제적 변수, 가치지향, 소비자기능의 관계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사회경제적 변수, 가치지향, 소비자기능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소득, 가치지향, 소비자기능의 관계를 보도록 한다. 저소득층주부가 중간소득층주부보다 더 목표지향적인 가치지향을 지니며 인간-자연지향에 있어서는 더 자연복종적인 가치지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주부는 근면하고 강한 성취동기를 지니고 있는 반면, 자연의 힘과 같은 환경에 대해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운명론적인 가치지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나태하지 않고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는 강하지만, 생활을 계획하

고 환경을 통제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저소득층주부의 가치지향을 소비자기능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건축기능에 있어서는 개인의 의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환경통제능력이 크게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목표지향적인 가치지향을 지니고 있는 저소득층주부가 중간소득층주부보다 건축기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산기능과 구매기능에 있어서는 계획 및 환경통제능력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비교적 자연복종적인 가치지향을 지닌 저소득층주부가 중간소득층주부보다 예산기능 및 구매기능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교육, 가치지향, 소비자기능의 관계를 보겠다.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래지향적인 가치지향을 지니며 시간지향이 약간 미래지향적일 경우 구매기능이 가장 높다. 그리고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목표지향적인 가치지향을 지니며 활동지향이 목표지향적일수록 건축기능이 높아진다. 그러나 교육은 인간-자연지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가치지향과 무관하게 교육수준의 향상은 예산기능과 구매기능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세째, 소득과 교육을 함께 고려하여 가치지향, 소비자기능과의 관계를 종합해 보면, 저소득층주부들은 대체로 교육수준이 낮지만 목표지향적인 가치지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축기능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저소득층주부들의 예산기능과 구매기능은 중간소득층주부들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낮은 교육수준 또는 자연복종적인 가치지향으로 인하여 환경통제능력이 낮은 점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보겠다.

V. 결 론

본 논문은 도시 저소득층소비자의 경제문제를 소득문제와 소비문제의 두부분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소득문제는 빈곤가계유형에 따라 경제적 곤경도와 가족원의 경제적 기여도에 대해 실태 분석함으로써 알아보았으며, 소비문제는 사회경

제적 변수, 가치지향, 소비자기능에 대한 연구가설을 세워 검증함으로써 밝혀보고자 했다. 소득문제와 소비문제에 대한 중요한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문제에 있어서 저소득층가계는 중간소득층가계에 비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다. 빈곤가계유형에 따라 경제적 곤경도를 비교해보면 남편무직·부인취(부)업가계와 여성가구주무직가계의 경제적 곤경도가 가장 심각하다. 그리고 부인과 자녀의 경제적 기여도를 보면 남편무직·부인취(부)업가계와 여성가구주취업가계의 경우 부인의 경제적 기여도가 매우 크고, 부부무직가계와 여성가구주무직가계의 경우는 미혼자녀의 경제적 기여도가 상당히 크다. 둘째, 소비문제에 있어서 저소득층소비자는 금전관리기능중 건축기능은 중간소득층소비자보다 높고, 구매기능과 금전관리기능 중 예산기능은 중간소득층소비자보다 낮다. 그들의 예산기능과 구매기능이 낮은 이유는 저소득으로 인해 운명론적인 가치지향을 갖게 되어 환경통제능력이 향상되지 않았거나 낮은 교육수준의 영향때문이다. 세째, 저소득층소비자의 시간지향은 중간소득층소비자와 비슷한 정도로 미래지향적이며, 활동지향은 중간소득층소비자보다 더 성취동기가 강한 목표지향적인 반면 인간-자연지향은 중간소득층소비자에 비해 더 운명론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들로부터 다음 몇 가지의 결론들을 끌어낼 수 있다.

첫째, 저소득층가계의 경제적 곤경도는 소득및 재산의 크기, 가구주의 성별, 부부의 취업유무, 가족원수 등을 고려한 빈곤가계유형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가계소득은 남성가구주의 근로소득 외에 부인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전이전소득을 모두 포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둘째, 저소득층소비자의 소비문제는 예산기능과 구매기능에서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그들이 환경에 대한 통제론적 가치지향을 지닐 수 있도록 소득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가와,

고 소득층가량이 소비자기능을 향상 시키도록 하는 고등교육을 받게 할 만큼 충분한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세째, 우리나라 도시저소득층 소비자는 활동지향에 있어서는 '건진한 빈자' 이면서 인간-자연지향에 있어서는 '빈곤에 적응된 빈민'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립된 양상으로부터 전자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파악 될 수 있고, 후자는 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파악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서는, 경제적 곤경도 측정을 위해 소득과 재산을 포괄하는 종합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리라고 보며, 저소득층소비자의 소비문제는 가치지향 중 특히 인간-자연지향과 관련하여 예산기능과 구매기능을 중심으로 보다 깊은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빈곤문화적 특성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곤경도가 심각한 빈곤가계유형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 세대에 걸친 종단적 연구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김민정·이기춘, 가계소득적정도 인지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논문집, 1984, 제 9 권, 1-22.
- 2) 김영모·김성전, 도시빈민의 생활상태에 관한 연구. 사회정책연구, 1986, 제 8 집, 5-77.
- 3) 김영모·원석조·황민수, 한국빈곤정책에 관한 연구 (영세민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사회정책연구, 1982, 제 1 집.
- 4) 노창섭, 도시슬럼지역의 사회적 성격: 동부이촌동의 실태. 이대문화논총, 1967, 제10집.
- 5) 박영숙, 도심지 빈민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국사회연구 II. 한길사. 1984, 383-411.
- 6) 서상목·박환구·김종기·임희섭·최일섭·이영휘·김성순, 빈곤의 실태와 영세민 대책. 한국개발연구원. 1981.
- 7) 임희섭, 한국에 있어서의 빈곤문제. 한국사회개발연구 (1). 고대야세아문제연구소. 1979.
- 8) 이해영·이흥구·임희섭, 서울시 저소득층의 적응에 관한 연구. 미발표자료. 1972.
- 9) 이기춘, 소비자능력개발을 위한 소비자 교육에 관한 연구 (청소년 소비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 10) 정진화, 청소년의 소비지지식과 소비자 행동에 관한 기초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11) 최일섭, 빈곤계층의 실태와 사회정책적 과제. 사상과 정책, 1984, 제 1권 2 호, 63-76.
- 12) 최일섭·김광억,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빈곤문제연구의 성과와 과제. 사회과학정책연구, 1982, 제 4 권 2호, 293-310.
- 13) 표갑수, 한국의 빈곤문화에 관한 고찰.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논총, 1983, 제 1 권 1 호, 153-165.
- 14) Andreasen, A.R.: *The disadvantaged consumer*. New York: The Free Press. 1975.
- 15) Atkinson, A.B.: *The economics of inequality*. Oxford: Oxford Univ. Press. 1975.
- 16) Baumol, W.J. & A.S. Blinder: *Economics: Principles and Policy*.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29.
- 17) Caplovitz, D.: *The poor pay more*. New York: The Free Press. 1967.
- 18) Eastwood, D.B. & Swagler, R.M.: Urban and rural low income consumer's market behavior: Implications for consumer education. *Proceedings of the 28th Annual Conferenc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 1982, 80-87.
- 19) Katona, G. & E. Mueller: A study of purchasing decisions. In Lincoln H. Clark (Ed.), *Consumer behavior: The dynamics of consumer reac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55, 30-87.
- 20) Kluckhohn, F.: Dominant and substitute profiles of cultural orientations: Their significance for the analysis of social stratification. *Social forces*, 1950, 28, 376-394.
- 21) Kluckhohn, F. & F. Strodtbeck: *Variation in value orientations*. Evanston, Illinois: Row, Peterson and Company. 1961.
- 22) Lewis, O.: *The Children of Sanchez*. New York: Vintage Books. 1963 (표갑수, 1983에서 재인용).

- 23) Lewis, O. : The Culture of poverty. *Scientific American*, 1966, 215(4). (표갑수, 1983에서 재인용).
- 24) Liebow, E.: *Talley's corner*.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67(Andreasen, 1975, p.21에서 재인용).
- 25) Madden, J.P., J.L. Pennock & C.M. Jaeger : Equivalent levels of living. In *Rural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8(May).
- 26) Magnuson, W. & J. Carper: *The dark side of the marketplace*.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2(Swagler, 1979, p.249에서 재인용).
- 27) Moon M. & E. Smolensky: *Improving measures of economic well-being*. New York: Academic Press, 1977.
- 28) Newman, J.W. & R. Staelin; Prepurchase information seeking for new cars and major household applianc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972, 9, 249-257.
- 29) Ratner, C.: Educating the low-income consumer: Some viewpoints from an action program. *Journal of Consumer Affairs*, 1968, 2(1), 107-114.
- 30) Rodman, H.: *Lower-Class families: The culture of poverty in Negro-Trinidad*.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71.
- 31) Robinson, J.P. & R.S. Phillip: *Measures of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6th ed.) Michigan : Survey Research Cente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1980.
- 32) Schnapper, E.: Consumer legislation and the poor. *The Yale law Journal*, 1967, 76, 745-768.
- 33) Strumpel, B.: Economic life-styles, values and subjective welfare. In Eleanor Bernert Sheldon(Ed.), *Family economic behavior: Problems and Prospects*. Philadelphia: J.B. Lippincott Co, 1973, 64-138.
- 34) Swagler, R.M.: *Consumers and the market*(2nd ed.). Lexington, MA: D.C. Heath and Company. 1979.
- 35) Troelstrup, A.W. & E.C. Hall: *The consumer in American society*. New York: McGraw Hill, 1978.
- 36) Turner, J.: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imulated market to test children for selected consumer skills. *Proceedings of the 23rd Annual Conferenc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 1977, 88-96.
- 37) Valentine, C.A.: *Culture and poverty: Critique and counterproposal*.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Andreasen 1975, p.21에서 재인용).
- 38) Watts, H.W. & F. Skidmore: *The implications of changing family patterns & behavior for labor force & hardship measurement*. National Commission on Employment & Unemployment Statistics, Background Paper No. 16, 1978(June)